미리넷솔라, 일본 태양광 시장 진출

미리넷솔라가 일본 CBC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태양광전지를 일본 및 세계시장에 공급해나갈 방침이다.
미리넷솔라는 일본의 종합무역상사인 CBC그룹과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3억엔(약 36억원)의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했다.
미리넷솔라는 CBC그룹을 통해 태양광전지를 일본 및 세계시장에 공급하게 되며 원재료인 잉곳, 웨이퍼 및 태양광모듈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.
CBC그룹은 매출 3조원의 종합무역상사로 세계 24개국에 지사와 4000여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, 태양광전지 및 원재료인 잉곳, 웨이퍼, 모듈 등 태양광 관련분야를 비롯해 자동차, 의약품 등을 세계시장에 공급하고 있다.
CBC그룹은 태양광전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파트너로 미리넷솔라를 선정하고 태양광 관련사업 제휴를 포괄한 3억엔의 지분 투자 참여를 결정했다.

<화학저널 2010/4/26>